

창세기(8)

28 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를 맺는 나무가 있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난 영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먹고,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죄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봄으로 말미암아 소망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 그 육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기쁨 부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영이 하늘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있는 나의 영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보면,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복이 될 지라.’ 하셨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있는 사람은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가라고 한 거예요. 가기만 하면 너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뭐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이 되어 있어요. 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를 다녀도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복된 말씀이 나갑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그런데 문제는 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복이 되었는데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 장에 보면 이 육신에 저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복 덩어리가 복이 감추어져서 육신 속에 감추어져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사탄의 자식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말씀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많이 낡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땅을 다시 채워라.’ 여기를 영어로 보면 ‘replenish’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창고에 물건 박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전부 컨테이너차가 와서 전부 실어 갔습니다. 그래서 텅텅 비었습니다. 그곳을 다시 또 새 물건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replenish’ 즉 ‘다시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킹제임스 버전 외에는 없습니다. ‘replenish’ ‘다시 채우라’는 것은 이 땅에 무엇인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두 없어져 버렸고 소멸되어 버렸고 다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 장에 가보면, 노아와 가족들을 살려 두시고 노아와 일곱 식구 외에는 다 죽이신 다음, 물이 걷힌 후 노아가 밖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며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이 채우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땅에 모든 기는 것, 공중의 새 할 것 없이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노아와 그 식구들 8 명과 노아가 방주 속에 들여놓은 생물들 외에는 다 죽었고 지구가 텅텅 비었습니다. 노아가 나오니까 자기들 식구밖에 없어요. 온 세상 지구가 자기네 땅이 된 겁니다. 줄지에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긴장이 풀려서 술을 먹고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다시 채우라’ 똑같은 ‘replenish’를 썼습니다.

그것을 보면 여기 지금 창세기 1 장 1 절 이후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고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심판을 초래하게 된 존재들 때문에 그들을 따로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창공이다. 옛날 성경에는 궁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만든 다음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지요. 그 존재들이 지금도 공중에 있습니다. 그 놈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시 채우라’는 말, 누군가가 어떤 존재가 이전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구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정도로만 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정도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아담에게 ‘너는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왕 하면 사람들 중에서 뽑힌 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왕은 다릅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세상을 인간들이 원했습니다.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요.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야, 사람들이 너를 배반한 것이 아니고 나를 배반한 것이다. 나를 거역한 것이고 나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왕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행하려고 달려들면 그냥 하라고 하십니다. 왜? 막을 도리가 없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부모들은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은 천지만물을 다 지으시고 난 후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다 준비된 다음에 너는 이제 다스려라, 너는 왕이다. 아~ 기가 막힌 얘기죠. 우리 히브리서 2 장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어서 모든 생축과 천하 만물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부 왕이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낙원 아닙니까? 히브리서 2 장 5 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오는 세상’은 세상입니다. The earth 지구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 지금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오는 세상은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럼 누구 지배에 맡긴다는 겁니까?

6 절에 누군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人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 인자(son of man)도 사람입니다. 이것을 자꾸 예수님으로 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son of man 은 소문자입니다. 에스겔에서도, “인자야 여기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죠? 인자는 바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인자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국말로는 인자지만 다릅니다. 킹제임스성경에서는 예수님은 고딕체로 써서 보통 사람들과 구분해 놓았습니다.

7 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이 ‘그’는 아담이죠? 천사들 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잖습니까? 에덴에 사는 아담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왕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을 더 이상 해석할 필요가 없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만물을 다 만들어서 그 앞에 갖다 주시고 ‘네가 왕이다.’라고 하셨을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 내가 도대체 뭐 길래…….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아,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봐도 못 받아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시편 8 편에 나옵니다. 바울을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 몇 장 몇 절은 기억하지 못 했어요. 몇 장 몇 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성경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몇 장 몇 절을 딱딱 외워서 말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몇 장 몇 절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말씀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애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거지요.

시편 8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씀만 깨달아도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있어요. 3 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들과 주께서 정해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인자’도 son of man 소문자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 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으며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우셨나이까?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다스리는 것은 사람이 아니지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만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사람 밑에 있는 만물들이 마땅히 사람들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엄마에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누가 더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아내보다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내 보다 공부도 못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아무리 예쁜 사람도 얼굴이 지저분하면 그 목도 추한 사람의 목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났어도 목이 안 돌아가면 그 얼굴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 병신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질서를 깨달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군대 가보면 일자 무식한 사람한테도 한 달만 늦게 들어와도 경례 딱 붙이고 기합을 주면 기합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은 질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곳에서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깨닫는 겁니다. 그 후에 사람이 되어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은 한 이러한 왕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므로 그 지위에서 떨어진 겁니다. 마치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결국 왕권이 떠나가니까 악신이 그에게 역사한 것처럼 아담도 결국 창세기 3 장에 타락하게 되지요. 그러면 사탄이 찾아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종이 된다. 사탄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다시 말해서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4 장 6 절을 보겠습니다. 5 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나에게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사탄은 지금 이 땅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간들이 지어서 그 속에서 태어나 계속 죄를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굉장히 축복하지요. 이 육신의 생일을 축복하는 데 드는 시간과 케익과 촛대와 포장에 드는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보면 매일 Happy birthday 하느라고 정신 없었어요. 선물 주고 아마 그거 없어지면 세상 경기가 많이 나빠질 것 같아요.

사실 우리에게서 거둬낸 날이 더욱 중요합니다. 썩을 육신의 생일을 너무 많이들 축하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에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탄 마귀들이 어디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 4 가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지금 이 땅을 통치하는 대통령들과 정치가들은 ‘정사’라는 사탄이 정권을 주어서 다스리고 있고, 권세자들은 사탄이 권세를 주고, 죄를 계속 짓고 있고 마약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을 주관하는 사탄이 역사하며, 그 다음에 화를 내고 불순종하고 강도 짓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 세상에서 4 개의 군단으로 지금도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면서 왜 기다리십니까? 정한 때, 때에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 아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마지막 아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절대로 영원토록 타락하지 않을,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양자되는 사람들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참으시면서. 때가 딱 되면 사탄은 쫓겨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려고 말입니다. 아직도 그럴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아직 그들이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는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일시적으로 아주 조금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을 거슬러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을 죽입니다. 맹수가 나와서 아직도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조그만 모기가 특 쏘니까 나일강 바이러스가 생겨서 사람이 죽어 나자빠집니다. 사스가 나와 사람을 죽입니다. 별 것도 아닌 것들이. 인간들은 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퇴위 당한 왕이요 은퇴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은 사라져버렸고 다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 속에 영과 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옛날 아담처럼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됩니까?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몸까지도 죽지 않을 몸을 입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 장 10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라 라고 하니.” 땅 위가 어디입니까? only earth 입니다. 지구 위에서 우리가 통치하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9 장 보시겠습니다. 므나 비유지요? 16 절부터 보면,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므나로 열 므나를 벌었나이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 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15 절을 보니까 “주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얘기죠.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을 불러 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라.” 여기 지난번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장사하다’는 영어로 ‘occupy’입니다. ‘차지하라, 정복하라’ 이런 뜻입니다. ‘차지하라, 정복하라’ 아담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또 ‘너희는 가라.’ 그러셨지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이 우리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한테 네가 바라보는 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로와 세로로 걸으라 하셨습니다. 그 땅을 네게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는 곳마다 걷습니다. 차를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또 밭로 걷습니다. 참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못 사는 곳에 가서 순진한 사람 꼬드겨 교회로 끌고 온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감추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차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알면 이건 뭐 엄청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알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는데도 죽기 살기는커녕 눈만 멀뚱멀뚱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코앞에 두셨는데도 이걸 못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딱 알았다고 하면 그냥 뭐 밤을 새워서 일하고 엄청나 투자를 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일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어리숙하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 주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통치권, 다시 우리가 왕으로 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된다.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옛날 첫 사람 아담이 잃은 통치권을 찾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은 히브리서 2 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마귀는 죄를 통하여 사망을 주는 게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다음 부활하심으로 마귀가 가진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마귀를 붙잡아서 감옥에 처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어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던져 버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정말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은 이것을 압니다.